

‘5·18 특별법 처벌 신설’ 4년만에 왜곡 사범들 재판대에

광주지검, 최근 법 위반 9건 순차 기소
단순 의견 표명 3건은 불기소 처분
지역 내 최초...재판 과정·결과 관심
재단 “평화 근절·오월정신 계승 소망”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생긴 지 4년 만에 왜곡·편향 표현을 사용한 누리꾼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제껏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이 고소·고발한 건은 수십개에 달하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오월 광주’에서의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9명(9건)을 최근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2021년 1월 이후 수사가 이뤄진 것들이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1996년 발효됐다. 이때의 초점은 12·12군사반란 주역 처벌과 피해자 명예 회복, 진상 규명이었다.
그러나 신군부 세력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진상 규명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는데, 특정 세

력들은 이 틈을 노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일각에선 오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왜곡·편향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정치권이 응답하면서 2021년 특별법에 해당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해당 행위자들을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해 왔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들은 광주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광주경찰청이 송치한 것들이며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넘겨 받은 사건 중 3건(3명)의 경우 기소한 이들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으나, 언론 보도에 근거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선 “너무 늦은 것이냐”는 아쉬움과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처벌 조항 신설 후 광

주에서 기소까지 이뤄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처벌이 이어져 5·18 왜곡·편향을 근절하고 오월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원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타지역에선 확정 판결까지 아니어도 형사 처벌 사례가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5·18민주화운동의 광주에서 정식 기소가 이제 이뤄진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를 계기로 모든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기준에 따라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공권력에 의한 희생...더이상 이런 아픔 없기를”

故 이한열 열사 제38주기 추모식 엄수

고(故) 이한열 열사를 기리는 제38주기 추모식이 지난 5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엄수됐다.

추모식은 (사)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 추모연대 주관으로 열렸으며, 유가족을 비롯해 김익태 이한열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주정 진흥고 총동창회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민중의례 ▲내빈 소개 ▲열사 연보 낭독 ▲인사말 ▲편지글 낭독 ▲추모사 ▲추모 공연 ▲유가족 인사 ▲현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익태 이한열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한열을 누가 기억할까. 4·19나 6·25처럼 하나의 과거로만 남게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이한열 정신을 사회 속에 되살리는 동시에 단체들과 연대해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상미씨의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추모 공연이 이어졌으며, 유족 대표로 나선 이 열사의 큰 누나 이숙례씨는 “공권력에 의해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우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



고(故) 이한열 열사 제38주기 추모식이 지난 5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려 이 열사의 모교인 광주 동산초등학교 6학년 이하영군이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제공>

는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더는 이런 고통을 겪는 유족이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故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6·10대회'를 앞두고 열린 연세대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27일간 투병하다 같은 해 7월 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주성학 기자

광주·전남 6월 평균기온 22.9도 ‘역대 최고’

올해 6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6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높은 22.9도로 산출됐다.

이는 가장 더웠던 해인 지난해(22.7도)보다

0.2도 높은 수치여서 역대 최고 1위가 경신했다.

기상청은 평균기온이 높았던 이유로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분 남서풍을 꼽았다.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햇볕이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지역의 올해 첫 폭염특보는 27일에 발효됐고 28일 전역으로 확대됐다.

열대야의 경우 19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는데, 지난해(7월 5일) 보다 16일 빨랐고 역대 가장 이른 시기였다.

6월 한 달간 폭염·열대야 일수는 각각 0.7일, 1일로 역대 3위와 1위를 기록했다.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각각 171.4mm, 10.1일로 평년(177mm, 10.2일)과 비슷했다. /안재영 기자

“검찰 개혁 국민적 공감대...과오 성찰”

송강 광주고검장 취임

송강 신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취임했다.

6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지난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로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송 고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산실인 빛의 고장에 부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형사 사법 제도가 많은 변혁을 겪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검찰의 사명은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실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는 겸허하게 성찰하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안재영 기자

‘강제송환’ 허재호 전 회장, 탈세 재판 6년만에 출석

국내로 강제송환 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 재판 진행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재판을 재개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 등 원정

에서부터 재판을 검토했다.

허씨는 2019년 7월 기소됐으나, 앞서 출국한 뉴질랜드에서 좀처럼 귀국하지 않아 재판은 6년 넘게 공전됐다. 결국 지난 5월 허씨는 강제송환 됐는데, 이후 구속취소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날 허씨 측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소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니 공소기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허씨 측의 주장을 검토하되 우선 오는 21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석 명의를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